서효인의 '소설처럼'

긴급한 사태 앞에서 깊고 길게 사유하기

-2025년 봄호 문예지들

지연된 정의라 하더라도 정의가 아닌 것보다는 낫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4월 4일로 밝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선고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비상계엄이 12월 3일 밤에 있었으니 꼬박 넉 달을 채운 셈이다. 파면이 인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나 미래는 모르는 일이다. 그날 밤이 되기 전까지 비상계엄이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여 법원에 폭동이 일어날 것이리라 생각한 사람 역시 없다. 구속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는 어떠했는가. 불확실한 미래는 불안을 키운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우리의 영혼은 잠식당했다. 그럼에도 4월 4일, 피소추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민주주의의 영혼이 회복되리라 믿는다. 우리는 앞발에 걸리는 돌멩이는 못 보았지만, 멀리에 산등성이는 계속해서 보아왔다. 이제 거의 도착이다.

2024년 겨울, 비상계엄 이후 2025년 봄에 출간된 각종 문예지에서는 지나칠 수 없는 긴급한 사태에 긴밀하게 반응했다. 한때 지성계와 문학계를 아우르며 시대를 풍미했던 문예지는 속도와 영상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다수가 계절에 한 번 책을 내는 계간지로 출간된다.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창작과비평', '문학과사회', '문학동네'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요즘 들어 더욱 구닥다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각종 뉴스는 하루는커녕 반나절도 되지 않아 지나간 소식이 되어버린다. 독자는 오랜 사유 끝에 탄생한 길고 깊은 콘텐츠보다는 엄지손가락으로 툭툭 넘겨 볼 수 있는 짧디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듯하다. 게다가 비상계엄이라니, 이후 이어진 숨 가쁜 변곡점을 계간지가 다루기에는 벅차 보일 수도 있다.

문학과사회는 매호 별권으로 내는 문학과사회-하이픈에서 작가 열다섯 명의 글을 모아 '탄핵-일지'를 꾸렸다. 글은 윤석열 구속취소 이전에 마감된 듯하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탄핵 절차에 대한 불안감과 절차와 법규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공존한다. 작가들은 섣불리 전망하거나 확신하기보다 혼란해하거나 침잠하길 택한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사회와 제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남태령의 빛을 생각하며 김수영을 떠올리기도 하고 혐오를 혐오하는 일의 아이러니를 고민하기도 한다. 그들 중 누구도 사태를 평론하지 않았다. 작가는 우선 기록할 뿐이다. 기자가 현상을 기록한다면 작가는 내면을 기록한다. 개인의 내면이 모여 사회의 내면을 이룬다. 내란 앞에서 작가가 기록할 내면은 물론 사회의 내면이다. 우리의 안쪽은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작가들은 집요하게 파고들고, 회고하며, 고백한다.

문학동네의 특집도 '내란 일지'이다. 어쩌면 우리는 탄핵과 내란과 같은 쇳소리 나는 단어를 왕복하며 이 시간을 견뎌왔는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한 '탄핵-일지'가 기록이라면 '내란-일지'는 질문에 가까운 듯하다. 지난겨울 우리가 겪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또 무엇인지, 너무 참담하고 또한 너무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질문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 응원봉 집회가 부른 것의 기저에 있는 문화적 의미를 되짚는다. 그 집회를 주도한 여성의 광장 참여는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살펴본다.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라니, 이러한 서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다. 우리는 불가능의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 위에, 제대로 된 플롯을 구성하려 한다. 그것을 민주주의의 서사 구조라고 해도 될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어쩌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전부일 수 있다. 우리에게 정치과 헌법에 있어 말이 되는 서사는 오직 민주주의뿐이다.

창작과비평은 'K민주주의의 약진'이라는 특집으로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번 겨울 우리의 움직임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모범이 될 것이라 확언한다. '변혁적 중도'라는 개념을 설파하고 혐오의 꼬리를 끊어내야 할 당위를 강화한다.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보수세력에 대한 분석도 꼭 필요한 논지로 보인다.

매일 속보가 쏟아진다. 당장 4월 4일 이후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소식에 휘둘릴 것인가. 그 소식을 쌓아놓고 깊이 그리고 길게 사유하는 일은 중요하다. 역사적 급변 사태 앞에서 그 일은 더욱 소중할 것이다. 참혹한 겨울을 지나온 우리가 올해 봄호 문예지들을 읽어야 할 이유다. 〈시인〉

의료칼럼

치아를 뺐다가 다시 넣는다고요?

조형훈
조선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 교수

흔히 신경치료라고 불리는 근관치료는 치아 우식 등으로 인해 치아 내부의 치수가 감염되었을 때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살려서 사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상적인 치과 치료 술식이다. 하지만 근관치료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치아 뿌리와 내부 구조가 해부학적으로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최신 기구와 재료,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감염된 조직과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근관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 끝 염증이 재발하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재근관치료이다. 이는 기존 근관 내부에 충전된 충전재를 제거하고 다시 소독한 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근관 내부에 기둥이 세워져 있거나 충전재를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뿌리 끝까지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술적 또는 외과적 재근관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은 의도적 재식술이라는 술식이다. 이 술식은 통상적인 근관치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치아 구조를 가진 경우 마지막으로 치아를 살리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이다. 의도적 재식술은 치아를 조심스럽게 발치한 후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치료가 가능하다면 뿌리 끝을 일부 절제하고 뿌리 끝에서부터 역방향으로 근관치료를 시행한 후 다시 원래 위치에 치아를 다시 넣어주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도적 재식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치아를 뺐다가 다시 넣는다고요? 그렇게 해도 치아가 붙나요?"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치아 재식술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치과 상식 중 하나는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 치아가 밖으로 빠졌을 때 우유나 식염수에 보관해 치과로 가면 다시 심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치아 재식술이라고 하며 의도적 재식술은 이를 사고나 외상이 원인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치아는 단순히 잇몸뼈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치주인대라는 인대조직을 통해 고정된다. 치아가 빠지는 과정에서 이 인대가 끊어지게 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제자리에 위치시키면 인대가 재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외상으로 인해 빠진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대를 보호하기 위해 우유나 식염수에 담가 치과에 가야 하는 것이다.

의도적 재식술은 이와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지만 단순히 빠진 치아를 다시 심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발치하여 치료한 후 다시 심는 술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의도적 재식술은 일반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다른 치료방법이 불가능하고 발치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이다. 특히 입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어금니나 뿌리가 입천장 쪽이나 혀쪽에 위치해서 다른 수술 방법으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는 이미 근관치료를 해야할 만큼 많이 손상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아를 빼는 과정에서 치아가 부러질 위험이 있다. 또한 치아를 다시 심은 후에도 완전히 자리 잡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약 4~8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장기간에 걸쳐 뿌리가 녹는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의도적 재식술은 그 필요성과 근거가 명확할 때만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의도적 재식술은 일반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마지막 치료법으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시행된다면 자연치아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 고

안전도 문화다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봄이 되니 공연과 축제가 한창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거리마다 활기가 넘친다. 하지만 그만큼 도로 공사와 건축 공사도 많아졌다. 광주만 해도 여기저기서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길이 막히고 소음이 들끓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안전이다. 현대 사회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할 문화가 되어야 한다.

지난 12월에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고 3월에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짝 주목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경각심이 흐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안전은 늘 최우선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뒷전으로 밀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주상공회의소는 4월에 산업안전위원회를 발족한다.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돕고 지역 내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봄이면 공연과 축제가 많아지는데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진다. 인파가 몰리면 작은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구 관리가 중요하다. 가끔 비상구가 막혀 있거나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긴급 상황에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비상구는 언제든 열려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군중이 한곳에 몰릴 때의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사람들은 군중 밀집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연장과 축제에서는 안전 요원 배치가 부족하고 동선 관리가 허술한 경우가 많다.

스탠딩 공연에서는 무대 앞에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인원을 초과해서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무대 안전도 철저해야 한다. 조명, 음향, 무대 장치 등은 제대로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고공 작업 시 안전 장비 없이 무리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연을 진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공연 전에는 반드시 안전 안내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학교 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그런데도 교실, 운동장, 복도, 실험실, 체육관 등 어디서든 위험은 존재한다. 시설 점검이 철저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주변 교통 안전도 중요하다. 아침, 저녁으로 등하굣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스쿨존 내 과속 방지 시설, 신호 체계 정비, 횡단보도 안전 요원 배치 등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스쿨존 내 사고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리고 교내공사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간과하면 안 된다. 얼마 전 광주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해양에너지'가 중요한 제안을 했다. 학교에서 굴착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스관이 손상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양에너지는 학교 측에서 굴착행위를 하기 전 반드시 도시가스 시설을 점검하도록 건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광주 내 모든 학교에 이를 전파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조치는 교육부의 관심을 받았고 전국의 교육청에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전국의 학교들이 이 정책을 반영하고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제안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한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안전 대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보호받게 된다. 지역사회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하면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안전은 특정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연장, 산업 현장, 건설 현장, 교육시설까지 모든 곳에서 안전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안전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문화다. 공연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전도 문화다.

社說

총력전 벌인 민주당-혁신당, 후유증은 없길

4·2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정국에서 치러지다 보니 전반적인 관심도는 덜했지만 담양군수 선거는 어느때보다 치열했다. 담양군수 선거 투표율이 전국 5곳에서 치러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평균 투표율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수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조국혁신당은 호남 교두보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12일의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할 정도로 총력전을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직접 담양에 내려와 지원 유세를 펼칠 정도로 공을 들였고 조국혁신당도 수감중인 조국 전 대표를 대신해 지도부가 수 차례 담양을 찾아 전국 첫 단체장 배출에 온 힘을 쏟았다.

치열한 선거전으로 인해 과열 양상도 나타나 정책 공약보다는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전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담양군수 선거 사상 처음으로 펼쳐 진 '당대 당' 대결에 희망을 갖기도 했다.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는 당락을 떠나 민주당 독식 구조에서 선택의 자유를 빼앗긴 유권자들에게 오랜만에 선택의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그동안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갖는 가장 큰 아쉬움은 선택의 폭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전 영광군수에 이어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는 이런 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되돌려준 선거였다.

선거 과정을 즐긴 유권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을 후보를 선택했다. 각자의 선택이 당선이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치열했던 만큼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젠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 당선인 측에서 상대를 끌어 안는 자세가 중요하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정책 고령층도 배려해야

광주시가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정책을 시행한 첫 날 현장은 대체로 순조로웠다. 시행 첫 날인 지난 1일 첨단92번과 첨단94번 2개 노선 7대의 시내버스가 현금함 없이 운행을 시작했는데 승객과 운전기사 간 마찰은 없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정책은 광주시가 갈수록 현금 사용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해 운전기사가 운전에만 전념하도록 도입한 제도다. 지난 1일 첨단92번 노선을 시작으로 4~5월에는 도심 노선, 6~7월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외곽 노선까지 확대해 광주 시내버스 102개 노선 1044대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 첫날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보니 해당 버스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라는 안내 문구를 붙이고 현금함 없이 운행했다. 광주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현금 사용률이 1.6%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가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터라 큰 불편이나 마찰은 없었다. 다만 운전기사가 현금을 내는 승객을 위해 계좌이체 안내지를 전달하고 선불카드까지 판매하고 있어 안전 운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운전 운전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금 없는 사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현금함을 없앤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정책의 목표는 안전 운전과 현금함 유지비 등으로 들어가는 연간 5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예산 절감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한데 안전 운전 효과라도 달성하려면 운전기사의 일손이 줄어들도록 시행 초기부터 대대적인 홍보로 정착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광주시의 조사에서도 확인됐듯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승객이 아직도 3.7%에 달한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無等鼓

우주개 라이카

아이의 울음 소리, 분열중인 세포의 구조, 숲과 나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어쩌면 먼 미래, 우주의 외계 생명체가 '지구'라는 존재와 '지구인'을 상상할 때 궁금증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지 모르는 것들이다.

1977년 NASA가 발사한 작은 탐사선 보이저 1, 2호에는 지구와 인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황금 레코드가 탑재됐다. 레코드에는 인간과 문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 118장, 웃음소리, 파도 등 자연의 소리, 55개 언어로 번역된 '안녕하세요' 등이 담겼다. 인도 등의 민속음악과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등 클래식을 포함해 27곡의 음악도 실렸다. 인터스텔라에 진입한 보이저호는 인류가 우주로 쏘아올린 문명의 흔적들을 품고 여전히 항해중이다.

인간은 언제나 우주로 향하는 꿈을 꿨다. 1961년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돈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한 인물이다. 닐 암스트롱은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착륙에 성공, 지구 이외의 천체에 첫 발을 디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한 우주 도전사(史)의 영웅은 인간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생명체들이 있다. 가가린의 성공은 유사 이래 포유류 최초로 우주에서 궤도 비행을 한 '라이카'라는 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모스크바 시내를 배회하던 떠돌이 개 라이카는 1953년 11월 3일 스푸트니크 2호를 타고 우주로 날아갔지만 7시간만에 세 살의 어린 나이로 목숨을 잃었다.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간 초파리, 히말라야 원숭이 알버트 2세, 프랑스의 우주고양이 펠리세트 역시 인간의 실험에 참여했다.

며칠 전 라이카를 주인공으로 한 창작뮤지컬 '라이카' 공연이 시작됐다. 가수 델리스파이스는 노래 '우주로 보내진 라이카'를 만들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우주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고흥 우주발사전망대에는 라이카의 작은 동상이 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2호 연구원은 "죽어서 라이카를 만나면 꼭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했다 한다. 인류 발전에는 인간만이 아닌, 수많은 생명체와 자연의 역할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미은 여론매체부 기자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